

바짝 말라가는 광주천... 커지는 시민들 걱정

주암댐 하천 유지용수 공급 중단
광주천 곳곳 바닥에 악취도 심각
황룡강 물고기 떼죽음 등 잇따라

“원래 광주천은 제법 물이 많이 흘렀는데 최근 한달새 급격히 수량이 줄더니 지금은 바닥이 보일 만큼 말라버렸네요.”

광주지역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식수원인 동북댐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광주천 등 지역 주요 하천까지 바짝 말라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봄 갈수기까지 겹치면서 광주천 곳곳에선 바닥이 드러났고, 수량 부족으로 악취뿐 아니라 수질도 악화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찾은 광주천 광운교부터 양동교 일대. 이 일대는 ‘하천’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물이 메말라 바닥을 보였다. 하천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 아래는 물 없이 바짝 마른 교량 다리가 나타났다. 물 사이사이 드러난 땅은 새들이 앉아 주변 물을 마시거나 쉬는 등 ‘마른 둥지’가 됐다.

마르지 않고 겨우 남은 물 위로는 담뱃갑과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가 떠다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새어나왔다.

매일 광주천을 산책하는 명상엽(93)씨는 “수위가 날로 줄고, 물이 더러워지면서 물고기가 많이 사라졌다. 광주천이 이렇게 가문 것은 광주에 70년 동안 살면서 처음이다”고 했다.



광주·전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식수와 농업용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0일 광주 동구 용산교 인근 광주천이 메말라 수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러 ‘60년 전에는 강이 맑아 목욕을 할 정도였다’며 ‘30년 전부터 더러워진 것 같다. 하수구 물이 내려오고, 비까지 안 오니 썩은 냄새가 난다. 물고기가 저 물을 마

시면 다 죽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물 부족에 하천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광주천 광운교의 수소이온농도(pH)는 8.1, DO는 13.6mg,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4.8mg,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6.0mg, 부유물질량(SS)은 38.0mg, 총인(T-P)은 0.114mg이다. 환경정책기본법 하천 생활환경 기준에 따라, 수질은 ‘약간 나쁨’이다.

‘약간 나쁨’ 등급은 상당량의 오염 물질

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 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천의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는 가뭄으로 주암댐의 하천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다.

하천 수질 악화는 물고기 떼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황룡강에서 물고기 20여마리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광산구와 환경청 등 당국은 1년가량 이어지는 가뭄에 강 수위가 낮아지며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하천의 용존산소량(DO)은 1~3㎍으로 생존 기준치인 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 자체가 부족한 데다 오염까지 심화하는 상황에 시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남수(66)씨는 “옛날에는 하천 밑바닥 땅이 보이질 않았다. 물고기도 잘 놀았고 예전이 훨씬 많았다”며 “광주 땅이 가물기 시작하면서 물 바닥을 보게 됐다.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면 사람에게도 나무에게도 좋지 않다”고 걱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물 부족 위기로 광주천 유지용수를 중단하고 시민의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며 “하천에 물이 없어 불편하시겠지만 시민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강기정 “무등산 케이블카 계획 아직 없어”

“군부대 이전·정상복원 최대고민”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이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 “아직 없다”고 20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환경부의 설악산 국립공원 신규 케

이블카 설치 허가와 맞물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케이블카 설치보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이 최대 고민”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전·복원이 끝나면 기존 균용도로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

기될 것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군,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오는 9월을 목표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 부위에 주둔한 방공포대도 대상을 모색해 연말까지 이전 계획을 마련



하기로 했다.

강 시장의 언급은 1966년 이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리는데 당분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와 관광객 등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

가 이어졌으나 자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곤 했다.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해 조건부 허가를 내주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쟁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무등산 자연환경보존 케이블카설치법 시민운동본부와 광주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GOLDEN HILL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2021-0000호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한국무역협회장 구자익

2021-0000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2021. 06. 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문기

업제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CERTIFICATE OF COMMERCE-SPECIFIC APPROVED EXPORTER

2021년 06월 21일

장주세관관

Head of GWANGJU Customs

벤처기업확인서

2023년 06월 09일

벤처기업확인기관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